

산책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만든다

전주시 완산구, 10월까지 전주천(18km)·삼천(20.2km) 구간 집중 정비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시민들이 쾌적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를 안전하게 정비키로 했다.

완산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을철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주천(18km)과 삼천(20.2km) 구간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가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구는 10월까지 산책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축광장으로 균열이 발생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노면을 정비하고,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토사를 제거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들이 쾌적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를 안전하게 정비키로 했다.

또한 파손된 난간과 진입 계단, 안내 표지판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산책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산책로 내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 양안 예초 작업 등을 통해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의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구는 야간 산책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표지병 점검 및 보수, 교량 하부 LED 조명 설치 등 조도 개선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추석 명절 이전까지 폭우 피해

복구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하천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 산책로와 운동기구, 의자, 진입계단 등 총 106건의 보수를 완료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승용예초기 및 트럭(2대)을 구입·운영해 산책로 주변 풀베기 및 지장수목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구는 은석천과 원색천, 신금천, 비아천 등 4개소에 대해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낚시, 경작) 지도 단속, 쓰레기 수거 및 부유물 제거 등 환경 정화 활동도 수시로 진행 중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하천 시설 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드론·조선팝 선을 특별한 만남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연계 전주조선팝공연 진행

조선팝의 선율과 가을 하늘을 수놓은 드론이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과 연계해 대회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조선팝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전주 조선팝의 매력을 알리고, 첨단 스포츠와 전통·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조선팝은 국악의 선율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로, 국악기와 전자음악·전통장법과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먼저 첫날에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구각노리 △국악인가요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라플라 △이희정밴드 △종류모리 △만월프로젝트 △윤세연밴드 △국은에이트 등의 조선팝 공연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윤동욱 전주부시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윤동욱 전주부시장, 국회 찾아 예산 반영 건의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앞당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윤동욱 전주부시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윤 부시장은 이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직접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전

북지역 및 전북 연구 국회의원과 김교흥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실의 보좌관을 차례대로 찾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윤 부시장은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건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AI 융합 전주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전주국제그림책도전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권희성 기자

김원주·최지은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정의 책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전2동)이



김원주 의원 최지은 의원

대표 발의한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23일 금암동 행정민원실과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 주민과 소통

'도시재생 지역주민 순회 간담회'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곳곳의 도시재생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금암동 행정민원실과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 지역주민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우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현장인 앞금암 거북바우마울과 용머리 여의주마울의 거점시설별 주민대표 및 운영주체로부터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먼저 금암동 앞금암 거북바우마울에서는 금암과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금암과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전주시 도시재생의 미래를 선도할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어 용머리 여의주마를 거점시설을 찾아 현재 주민 스스로 운영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날 건의된 용머리 여의주마를 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거점시설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국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